

● 전국도서관대회 제2주제발표

“도서관과 사서명칭” 이대로 좋은가

김 대 승

<경기대학교 도서관학과교수>

I. 서 론

1. 定 義

2. 研究의 制限

- 1) 학술적 성격의 연구대상이 아님
 - 과거의 명칭규명과 오늘날의 시대조류와는 관계가 없음.
 - 표본선정(연령, 출신, 성별등)의 불충분
 - 의견 및 태도 측정 (opinion and attitude questions)으로 결정할 성격이 아님.
- 2) 法的, 制度的 뒷받침이 필요하다.
- 3) 자격을 규정하는 명칭과 전문직종으로서의 명칭
- 4) 특정개인의 주의 주장일 수 없다.
- 5) 西洋의 Library와의 관련성

3. 史的考擦

1) 圖書館 名칭

- 고구려: 경당(局堂) - 소수림왕
- 신라: 예궁(穢宮) → 진각성(珍閣省)
- 발해: 문적원(文籍院)
- 고려: 성종조 수서원(修書院)外 內書省, 秘書省(寺, 監, 閣), 典校署(寺文德殿, 修文殿)
- 朝鮮朝: 校書監(館), 典校署, 春秋館, 藝文館, 寶文閣, 承文院, 讀書堂, 弘文館, 集賢殿, 尊經閣, 秘書司, 文書樓(庫), 隆文樓, 奎章閣 等

(1) 官文庫 (2) 教育文庫 (3) 寺院文庫 (4) 私設文庫로 區分

- 開化期: 書籍院(館, 庫) 藏書館, 書庫(館), 文庫, 集書院, 書籍縱覽所, 讀書俱樂部 等
- 綜合: ○○閣, 庫, 院, 堂, 亭, 館, 殿, 樓, 室, 署
- 年代別 發展
 - 1872年(明治5年) 以前(日): 書院, 書籍院(館) 등 사용
 - 1877年(日): 東京大學 法理文學部 圖書館 發足 日 최초의 圖書館이란 用語使用
 - 1880年(日): 東京圖書館 設立; 동경서적관이 문부성으로 이관되어 국립의 공공시설로서는 최초
 - 1889年 : 兪吉濬의 西洋見聞에서 「書籍庫」 소개
 - 1898年(中): 중국 호남지방에 공공「도서관」 설치
 - 1899年(日): 圖書館令에 「圖書館」用語使用
 - 1901年(日): 關西文庫協會의 기관지 東壁1號: 전국도서관명부, 52개 관중 4개 관만 서적관
 - 1906年 : 대한도서관 설립을 위한 발기회 (광무10년)
 - : 2月12日 字 皇城新聞기사 「韓國圖書館」
- 2) 司書名稱
 - 侍講院 正六品 벼슬
 - 「중」侍天敎의 서기의 직무

관련성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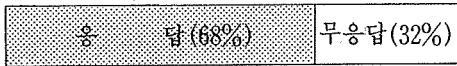
- 司券, 司準, 司勸, 司藝 등 奎章閣의 雜職, 尊經閣 職이 있었으나 관련없음.
- 文獻士: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當時 一部 使用
- 정보관리사: 최성진 「정보학 원론」
- 圖書館法: 전문직으로서의 명칭, 공공도서관 직원의 직급.

II. 자료의 수집 및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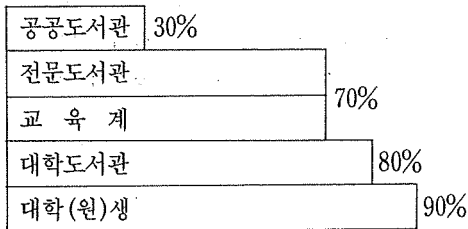
1. 개 관

- 표본집단
- 설문내용
- 조사기간 등

2. 회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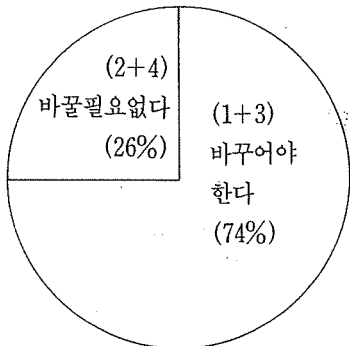


3. 관종별 회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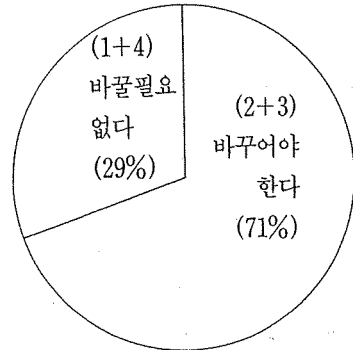


4. 찬반비율

1) 도서관 명칭



2) 사서명칭



5. 관종별 찬반비율

1) 공공도서관

- (1) 두 가지다 바꾸어야 한다. 67%
- (2) 두 가지다 바꿀필요 없다. 33%

2) 대학도서관

- (1) 두 가지다 바꾸어야 한다. 40%
- (2) 두 가지다 바꿀필요 없다. 50%
- (3) 사서라는 명칭만 바꾸어야 한다. 10%

3) 전문도서관

- (1) 두 가지다 바꾸어야 한다. 72%
- (2) 도서관 명칭만 바꾸어야 한다. 14%
- (3) 사서명칭만 바꾸어야 한다. 14%

4) 학 계

- (1) 두 가지다 바꾸어야 한다. 86%
- (2) 두 가지다 바꿀필요 없다. 14%

5) 대학(원)생

- (1) 두 가지다 바꾸어야 한다. 67%
- (2) 두 가지다 바꿀필요 없다. 11%
- (3) 도서관 명칭만 바꾸어야 한다. 22%

6. 바람직한 명칭의 순위

- 도서관 대신 (총 25명중)
- 1) 정보자료관 48% (12명)
- 2) 문헌정보관 20% (5명)
- 3) 정보센터 12% (3명)
- 4) 정보관 12% (3명)
- 5) 자료관 8% (2명)
- 사서 대신 (총 24명중)

- 1) 정보관리사 59%(14명)
- 2) 문헌정보사 25%(6명)
- 3) 문헌관리사 8%(2명)
- 4) 정 보 사 8%(2명)

- 2) 사회인식의 경우 변화된 내용과 기능을 알려서 명칭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.
- 3) 도서관은 전문직들만의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반영할 필요가 있다.
- 4) 명칭 개정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 업무나 지위가 격상되는 것은 아니다(운전수→운전기사, 간호원→간호사)
- 5) 도서관 사서가 최신정보와 그 운용기술을 습득·수용하면 자연히 극복되리라 믿는다.

III. 결 론

1. 변경의 필요성

- 1) 명칭과 수용매체 및 기능과의 상위점
- 2) 시대조류에 맞는 변경은 자연스러운 발전이다.
병원→의료원, 형무소→교도소, 유치원→유아원, 간호부→간호원→간호사
- 3) 司書의 경우 일반적 사회인식 부족
司法書士오해, 司書課에 대한 몰이해
차라리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.
- 4) 일본제국주의의 유물
- 5) 일반직종의 경우 〇〇士(특히 전문직인 경우)가 일반화
- 6) 학문의 명칭과 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.

2. 변경의 반대이유

- 1) 시대적 감각, 전문성 보다 대중성, 전통성이 더 중요하다.

3. 제안사항

- 1)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자체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.
- 2) 여러가지 세부적인 과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.
사서교사→정보관리사교사
문헌정보관→건물과 공무원 직급과의 혼란
- 3) 특정 사안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고려
(찬반수, 전문가의견, 행정적편의, 이익등 결정요인별 균형유지가 중요)
- 4) 최선의 방안이 없으면 차선의 방안도 중요
(학문의 명칭, 습관의 속성 : 에네르기, 에너지)

■ 신 간 안 내 ■

● 한국신학관계석·박사학위논문목록집(1945-1989)/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편/국판/서울/293p./나눔사/3,800원

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사무국
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 708-113
대한신학대학 본관 621호
전화번호 : 0343) 49-5271~3

<부록> 설문지

귀 하

안녕하십니까?

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제28회 전국도서관대회가 오는 10월하순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. 온 도서관인들의 만남의 장인 도서관대회에서 본인이 “도서관과 사서명칭 이대로 좋은가?”라는 주제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.

“도서관”이라는 우리의 일터와 “사서”라는 직종은 반세기 동안 우리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해 왔습니다.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우리들의 이러한 명칭을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.

주제의 성격상 이는 일개인의 학문적연구나 주관에 의해 표현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. 바쁘시더라도 도서관과 우리모두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90. 9. 12.

경기대학교 김 태 승 배상

설 문 지

1. 선생님의 소속은?

- (1) 공공도서관() (2) 대학·학교도서관()
(3) 전문도서관() (4) 학 계 ()
(5) 대학(원)생()

2. 현재 사용중인 명칭은?

- (1) 도서관이라는 명칭만 바꾸어야 한다. ()
(2) 사서라는 명칭만 바꾸어야 한다. ()
(3) 두 가지다 바꾸어야 한다. ()
(4) 두 가지다 바꿀 필요가 없다. ()

3. 만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바람직한 명칭은?

- (1) 도서관-()
(2) 사 서-()

4. 만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?

「

」

○ 2번 항목의 변경한다는 사실은 적절한 명칭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.

〈참 고 자 료〉

* 도서관을 대신할 수 있는 명칭

- 1) 자 료 관
- 2) 정 보 관
- 3) 문 헌 관
- 4) 정보자료관
- 5) 문헌정보관
- 6) 서지정보관
- 7) 도서정보관
- 8) 도서관·정보관
- 9) 정보센터

* 사서를 대신할 수 있는 명칭

- 1) 문 헌 사
- 2) 정 보 사
- 3) 문헌정보사
- 4) 문헌관리사
- 5) 정보관리사
- 6) ○ ○ 관 원